

엎치락뒤치락 중위권 혼전...“아차! 하면 추락이다”

KIA 주간 전망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원정 12연전의 반 환점을 올렸다.

남은 절반도 험하다. 이번 주 상대는 삼성과 두산이다.

중위권 싸움에서 숨 고를 틈 없는 승부가 펼쳐진다.

11일 기준 KIA 성적은 50승 50패 4무 (승률 0.500)로 리그 6위.

지난주보다 순위가 한 계단 내려갔다. 선두권과 격차가 크다. 1위 LG와 11.5경기, 2위 한화와 9.5경기, 3위 롯데와 5경기 차다.

문제는 앞뒤로 촘촘하다.

4위 SSG와 2경기, 5위 kt와 1경기, 7위 NC와는 불과 0.5경기 차.

●프로야구 팀별 순위

〈11일 기준〉

순위	팀명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LG	65	42	2	0.607	0
2	한화	61	42	3	0.592	2
3	롯데	58	48	3	0.547	6.5
4	SSG	53	49	4	0.520	9.5
5	kt	54	52	4	0.509	10.5
6	KIA	50	50	4	0.500	11.5
7	NC	48	49	6	0.495	12
8	삼성	51	55	1	0.481	13.5
9	두산	45	58	5	0.437	18
10	키움	33	73	4	0.311	31.5

후반기 확 달라진 삼성·두산 6연전, 물러섬없는 생존경쟁 ‘득보다 실’ 만만찮은 대구 원정, 투·타 안정세 잠실곰 부담 ‘위기를 호기로’...초반 기선 제압, 상위권 도약 신호탄 쏘아

하루이틀 잘못하면 순위표에서 위아래로 들썩인다.

최근 KIA는 가속 페달을 밟지 못하고 있다. 공격과 수비 모두 들쭉날쭉하다. 연습을 해도 기세를 이어가지 못한다.

지난주에도 흐름이 끊겼다.

롯데전 위닝시리즈 후 NC전 2연패, 원정 5경기 2승 3패.

후반기 성적은 16전 5승 10패 1무로 부진하다. 이번 주 6연전이 반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먼저 12일부터 8위 삼성과 원정 3연전을 치른다. 지난 6월 광주 맞대결 이후 두 달 만이다.

삼성엔 올 시즌 리그 최다 홈런(117개)을 날린 장타 군단이다.

삼성은 올 시즌 리그 최다 홈런(117개)을 날린 장타 군단이다.

삼성은 올 시즌 리그 최다 홈런(117개)을 날린 장타 군단이다.

삼성은 올 시즌 리그 최다 홈런(117개)을 날린 장타 군단이다.

삼성은 올 시즌 리그 최다 홈런(117개)을 날린 장타 군단이다.

삼성은 올 시즌 리그 최다 홈런(117개)을 날린 장타 군단이다.

삼성은 올 시즌 리그 최다 홈런(117개)을 날린 장타 군단이다.

삼성은 올 시즌 리그 최다 홈런(117개)을 날린 장타 군단이다.

삼성은 올 시즌 리그 최다 홈런(117개)을 날린 장타 군단이다.

삼성은 올 시즌 리그 최다 홈런(117개)을 날린 장타 군단이다.

삼성이 순위는 낮지만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KIA는 디아즈·김성윤을 앞세운 공격 라인을 막아야 한다.

이어 15일부터는 잠실에서 9위 두산과 맞붙는다.

시즌 전적만 보면 KIA가 8승 3패 1무로 크게 앞선다.

하지만 최근 두산 전력이 이전과 다르다. 전반기 7위였던 팀 ERA가 3.23으로 리그 3위까지 올랐다.

그중 선발 ERA는 2.32로 단연 1위. 타선도 팀 타율과 OPS가 안정세다.

후반기 들어 투타의 조화가 돋보인다. 특히 선발을 공략하지 못하면 경기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

표면적으로 하위팀이지만, 쉽지 않은 시리즈다.

그보다 더 어려운 삼성전이 먼저다.

주중 위닝시리즈를 잡아야 주말 두산전이 수월해진다.

이번 6연전은 남은 시즌의 향방을 가를 무대다.

최소한 순위 하락은 막아야 한다.

연패의 수렁에 빠지면 중위권 이탈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위즈덤

최형우

오선우

〈KIA 타이거즈 제공〉

4승 이상이면 상위권 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러나 ‘간판 스타’ 김도영의 부상 공백은 뼈아프다. 지난주 시즌 세 번째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했다.

사실상 정규시즌 복귀는 어렵다. 남은 전력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

잔여 경기는 40게임, 한 경기 한 경기가 무겁다.

이제는 결과로 보여줄 때다. /주홍철 기자

김광아 광주시양궁협회장, 광주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퍼포먼스



김광아 광주시양궁협회장(사진 맨 왼쪽)과 자원봉사자들이 11일 오후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자원봉사자 발대식에서 대회 성공 개최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터넷 기자

‘후반기 승률 최하위’ KIA, 코치진 부분 개편

새 1군 투수코치에 이동걸 불펜 코치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코칭스태프 보직을 일부 개편하며 선수단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KIA 구단은 11일 이동걸 불펜 코치를 1군 투수 메인 코치로, 이정호 퓨처스 투수 코치를 1군 불펜 코치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창 퓨처스 배터리 코치가 1군 배터리 코치를 맡는다.

이에 따라 기존 1군 코치진 일부는 퓨처스 팀으로 자리를 옮겨 유망주 육성에 힘을 보탠다.

정재훈 코치와 타케시 코치는 각각 퓨처스 투수 코치와 배터리 코치로 부임해 젊은 선수들의 성장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주홍철 기자

9월13일 여수서 개막...2025 프로배구 컵대회

외국인 선수 출전 허가로 ‘가닥’

다음달 열리는 2025 한국배구연맹(KOVO) 컵대회(프로배구 컵대회)에서 새 시즌을 준비 중인 각 팀의 외국인 선수가 일제히 출격할 전망이다.

KOVO는 11일 연맹 사무실에서 남녀부 구단 사무국장이 참석한 실무위원회 회의를 열어 외국인 선수 출전 여부를 구단 자율에 맡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통상 7월과 8월에 개최됐던 프로배구 컵대회는 지난해에는 9월에 열리면서 외국인 선수가 출전하는 길이 열린 바 있다.

지난해 프로배구 컵대회에 나선 외국인 선수

들은 국제배구연맹(FIVB)으로부터 국제이적 동의서(ITC)를 조기에 발급받아 나섰다.

그러나 올해는 FIVB 세계선수권대회가 이달 말부터 열리는 터라 ITC 발급이 쉽지 않다.

다만 연맹은 외국인 선수들이 일본과 동남아시아 리그 이벤트성 대회에서 ITC 발급 없이 뛰는 점을 고려해 프로배구 컵대회 역시 별도의 ITC 발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인 선수의 출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 프로배구 컵대회는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9월13일부터 20일까지 남자부, 21일부터 28일까지 여자부 경기순으로 열린다. /연합뉴스

스릉, 김민아 꺾고 LPBA 2연속 우승

‘캄보디아 특급’ 스릉 피아비(34·우리금융캐피탈)가 결승에서 김민아(NH농협카드)를 제압하고 통산 9번째로 여자프로당구 LPBA 우승을 차지했다.

스릉은 10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PB A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26시즌 3차 투어 ‘올바른 생활카드 NH농협카드 PBA-LPBA 챔피언십’ 결승에서 김민아를 세트스코어 4-1(11-32-11-5-11-11-6)로 꺾었다.

지난 시즌 무관해 그쳤던 스릉은 지난달 2차 투어(하나카드 챔피언십) 정상에 오른 데 이어 한 달 만에 또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이번 우승으로 삼금 4천만원을 추가해 누적



스릉 피아비의 우승 세리머니

〈PBA 제공〉

삼금은 3억6천282만원이 됐다.

또한 대회 규정에 따라 우승자인 스릉 명의

로 1천만원 상당의 쌀이 기부된다. /연합뉴스

장성야구스포츠클럽, ‘아시아 국제 티볼대회’ 한국 대표 참가

14-19일 일본서 열전

장성 유소년 야구팀이 한국을 대표해 아시아 무대에 도전한다.

전남도체육회는 11일 “장성야구스포츠클럽 꿈나무들이 오는 14-19일 일본 도쿠시마현 아난시에서 열리는 ‘제6회 아시아 국제 티볼대회’에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한다”고 밝혔다.

장성야구스포츠클럽은 지난해 열린 ‘2024 청소년 생활체육 클럽대항 티볼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이번 아시아 국제대회에 대한민국 대표로 선발됐다.

아시아 국제 티볼대회는 일본, 대만, 중국,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8개국의 유소년 대표 선수단이 참가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티볼대회로, 단순한 스포츠 대회를 넘어 미래 세대들이 스포츠를 통해 문화를 교류하고 우정을 나누는 뜻깊은 대회다.

장성야구스포츠클럽은 장성군 내 10-14세 유소년으로 구성된 생활체육 클럽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선수들은 아니지만 야구를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꾸준한 훈련하며 함께 성장해 온 순수한 야구 꿈나무들이다.

특히, 출국을 앞둔 선수들은 생애 첫 국제무대 출전에 설렘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도 동시에 느끼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로 제6회 아시아 국제 티볼대회에 출전하는 장성야구스포츠클럽 선수단. 〈전남도체육회 제공〉

선수대표 장예찬 군(14세)은 “처음엔 그냥 야구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일본까지 가게 돼서 너무 신기하고 떨린다”며 “외국 친구들이랑 같이 경기하는 게 기대된다. 홈런 한방을 꼭 한 번치고 싶다”고 수줍지만 당찬 각오를 밝혔다.

송근배 장성야구스포츠클럽 사무국장(감독)은 “이 대회 참가 자체가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도 세계와 통할 수 있다는 증거를 확인시켜준 크나큰 쾌거라고 생각한다”며 “스포츠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인성과 세계관을 길러주는 교육의 장이기도 하다”고 기뻐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지역의 작은 클럽이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이야말로 많은 아이들과 지역민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다”며 “전남도체육회는 앞으로도 유소년과 생활체육, 스포츠클럽의 저변 확대는 물론 국제무대에서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희종 기자